

# 기독교경영과 관련한 몇 가지 과제

정충영\*

<제목 차례>

- I. 서론
- II. 기독교경영은 무엇이며 그것은 가능한가?
  - 1. 기독교경영이란 무엇인가?
  - 2. 기독교경영은 가능한가?
- III. 기독교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성경원리
  - 1. Grounds 교수의 성경원리
  - 2. 성경의 원리들
- IV. 기독교 기업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 1. 기독교적 기업의 판별
  - 2. 기업경영의 재검토
  - 3. 기독교적 기업의 판별조건
  - 4. 기독교적인 기업을 왜 판별하는가?
- V. 결론

## I. 서론

본 연구는 기독교경영에 관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기독교경영의 연구와 실천을 위해 서울에 기독교경영연구소가 설립되었고 대구에는 로고스경영연구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한국로고스경영학회가 창립된 것은 2001년이다. 로고스경영학회와는 달리 모든 학문분야의 연구를 통합한 기독교적 학문의 전개를 위해 통합연구학회가 설립된바 있다.

4년 전에 출범한 한국로고스경영학회는 성경에 바탕을 둔 경영이론의 전개와 성경의 가르침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한국로고스경영학회는 로고스경영연구원을 모태로 하여 학회로 발전하였는데 이 당시 학회의 명칭을 한국기독교경영학회로 하지 않고 한국로고스경영학회로 한 것은 한국로고스경영학회가 지방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더 크게 기독교경영학회를 설립하도록 그 여지를 남겨놓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로고스경영'은 '기독교경영'이란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다.

로고스경영 혹은 기독교경영이 더욱 힘차게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경영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개념 정립이 이루어져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개념정립은 기독교경영의 발전을 위한 바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경영과 관련된 몇 가지 정립해야 할 개념 혹은 과제로 기독교경영의 개념, 성경의 기독교경영에의 적용 가능성 혹은 타당성, 그리고 기독교경영을 전개하기 위한 성경적 원리 및 기독교경영을 실천하는 기업 즉 기독교적 기업의 판별방법 등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자 한다.

-----  
\*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대구도시가스(주) 사장

이러한 내용들은 여전히 통일된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들

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기독교경영의 정의 및 그 적용가능성을 다루고 제3장에서는 기독교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성경원리들을 살피고 제4장에서는 기독교적 기업인치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마지막 장인 제5장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끝을 맺는다.

## II. 기독교경영은 무엇이며 그것은 가능한가?

### 1. 기독교경영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미술이나 기독교음악의 경우는 상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음으로 그 명칭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객관적으로 그 의미가 명확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을 뿐 아니라 널리 인정받고 있다. 예컨대, 기독교미술은 기독교의 예배와 사상이 결부된 미술이라 정의되고 있는데 4세기 초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함으로써 초기 기독교 미술(A.D.4C ~ 5C)이 정립되고 급속히 발달하여 미술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또 기독교음악이란 기독교에 의하여 발달한 예배·전례용의 음악이나 기독교 신앙에 관한 내용을 가진 음악으로서 그레고리오 성가, 레퀴엠, 미사곡, 찬송가 외에 전례극, 기적극 따위가 이에 속한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 현대기독교음악(CCM :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은 대중음악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내용 면에서는 기독교의 정신을 담아내는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기독교 음악으로 정의되고 있다.

기독교경영이란 용어나 개념은 한국에서의 기업경영 및 기독교의 전래의 역사가 일천하므로 이러한 용어들이 소개된 것은 오래 되지 않았고 따라서 그 개념이나 정의가 불명확하다.

다행이도 최근 기독교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0년 전인 1996년에 기독교경영연구원이 세워졌고 2001년 로고스경영연구원이 발족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2001년 봄에 한국로고스경영학회가 발족되었다.<sup>1)</sup>

기독교경영연구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경영학자, 기업인, 전문인 및 직장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며 선교하는 기관” 이라고 그 설립취지를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앙, 지식 및 사역공동체로서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기업경영을 조망하며, 성경적 경영원리를 연구 개발하고 이를 교육활동 및 자문활동을 통하여 기업경영 및 조직운영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탁월성과 윤리성을 갖춘 기업과 조직이 발전되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전문기관”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한국로고스경영학회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학문의 주(主)가 되심을 고백하는 작은 몸짓의 하나” 라고 그 설립취지를 밝히면서 “그 계획하신 바에 따라 천지만물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인간이 만든 것과 다른 경영원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늦게나마 깨달으며, 하나님의 원리를 경영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연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CEO로서의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성

1) 이들 두 기관 이외에 통합학회와 기독교학문연구회 등이 있으나 이 학회들은 모든 학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영원리들을 연구하고 체계화하며 오늘의 현실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오늘의 그리스도인 경영학자나 경영자에게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고 천명하였다.

이 두 기관에서 선언한 설립목적이나 취지에서 우리는 기독교경영이 은연중에 정의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기독교경영연구원은 기독교경영이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기업경영을 조망하며, 성경적 경영원리를 연구 개발하고 이를 교육활동 및 자문활동을 통하여 기업경영 및 조직운영에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탁월성과 윤리성을 갖춘 기업과 조직이 발전되도록 하는 “ 학문이라 정의되고 있다. 또 로고스경영학회는 ” 하나님의 경영원리를 연구하고 체계화하며 이를 현실에 적용하려는 “ 학문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기독교경영연구원이 전개하는 사업들을 포괄하기 위해 기독교경영을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고 후자는 기독교경영의 이론전개와 이의 적용이라는 두 측면에서 협의로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을 참조하여 기독교경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기독교경영이란 성경이 제시하는 경영의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실제 경영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정의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1) 성경에 근거한 학문이다: 이를 기독교 세계관이란 용어로 대신할 수 있으나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 것이냐 가 일치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란 용어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바울 사도가 밝힌 바와 같이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딤후 3:16-17)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경영원리를 찾는 원천으로 삼는다.

(2) 성경이 제시하는 경영원리를 연구한다 :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경영자이며 그의 경영방식이나 원리는 성경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발에 감춰진 보화처럼 숨겨져 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 (마 13:35)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가 바뀔에 따라 그 의미하는 바를 재해석해야 한다. 그러므로 경영의 원리를 연구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되어야 할 것은 기독교경영은 경영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기업경영을 통해 기독교를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초점은 경영의 원리와 이의 적용에 맞춰져야 하며 그 외의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업은 그 산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을 통한 사명보다 선교의 사명이 보다 더 중요하다 믿는다면 그는 사업체 대신 선교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실제 경영에 적용한다: 경영학은 그 성격상 실천적인 학문이라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연구된 성경의 경영원리는 경영의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약 2:17)는 야고보서의 명제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실제 성경원리를 적용하는 문제는 기업이나 조직에 따라, 환경과 여건에 따라 또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으로 이를 실천하는 문제는 경영원리의 연구와 다른 차원에 속한다.

## 2. 기독교경영은 가능한가?

우리는 앞에서 기독교경영을 정의하였지만 적어도 2,000여 년 전에 씌어진 성경에서 경영 원리를 도출하여 이를 오늘날의 경영에 적용하는 기독교경영이란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 두 견해를 살펴보고 제 3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부정적 견해

우리는 오늘 날 기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이슈들에 대해 성경으로부터 심오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믿고 있다. 그러나 과연 성경에서 경영자와 노동자들에게 공통의 지침들이 되는 통찰력과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가? 한 걸은 더 나아가 ‘성경은 정말 기업과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가?’, ‘성경의 모든 계시가 우리의 삶과 일상적인 활동을 위한 처방전이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말한다. 하나님은 천문학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으시듯 사업가에게도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으신다. 실제로 중역, 재무기획자, 고용주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지침들을 일일이 만들기는 불가능하며 또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주장한다.<sup>2)</sup>

Allen Hollis는 우리는 구약시대와 현재 사이에 존재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고대 히브리인들은 손으로 설계하고 들에서 경작하는 농경시대에 간혀 있었으며 성경은 기록한 사람들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서 대규모의 생산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화한 오늘날의 세상을 향해 그 낡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차이점을 먼저 밝히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sup>.

Josiah Stamp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였다<sup>4)</sup>. (1)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선적으로 영적인 것일 뿐 경제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지녔던 경제적 사고방식도 당시 시대의 조건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의 경제적 사고방식을 오늘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2) 성경의 자구(字句)로부터 오늘날의 경제적 문제를 위한 직접적인 지침을 도출하려는 과거의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위의 주장들은 성경에 근거한 경영 혹은 기독교경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 서 있다.

#### 2) 긍정적 견해

위와는 달리 성경을 기업경영에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주장은 다음의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함이라"(딤후 3:16-17)

2) Vernon C. Grounds, Responsibility and Subjectivity: Applying Biblical Principles in Business, Biblical Principles & Business The Foundation, arranged by Richard C. Chewning, Navpress, 1989, PP.121.

3) Allen Hollis, The Biblical and Money, New York:Hawthorn Books, 1976), pp.5, 9-10.

4) Christianity and Economics, New York: Macmiilan, 1939, PP.72-73.

여기서 사도바울은 성스러운 계시의 양면적 기능, 즉 인간실존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은 영적 그리고 세속적인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절대계시이다. 기업분야의 제조, 금융, 관리, 수출입과 같은 모든 비즈니스 활동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파라미터(parameter) 안에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장로교에서는 성경은 신앙과 생활에 적용될 완전한 규범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 이 교리는 2차 헬베티아고백서(the 2nd Helvetic Confession)의 서두에 있는 것으로서 1566년 스위스의 개혁교회들이 교리로 채택하였다<sup>5)</sup>. 이것은 1833년 미국 뉴햄프셔의 침례교회가 채택한 뉴햄프셔 고백서(New Hampshire Confession)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 고백에는 “성경은 성령의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며 하늘의 온전한 가르침임을 믿으며 ....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 끝 날까지 모든 인간의 행동, 신조, 의견들의 지고한 표준이 되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참된 중심이다.”<sup>6)</sup>

이 장로교의 신조는 1547년 토마스 크레머가 작성한 것으로 이는 에드워드스의 훈계(Edwardian Homilies)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를 향한 인간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의 지식보다 더 필요하거나 유익한 것은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올바르게 온전한 길을 걷기 위해 성경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과 그의 뜻, 그리고 인간의 일과 책임을 온전히 알 길이 없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배고픈 자에게는 빵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자는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이 필요하다.”<sup>7)</sup> 따라서 그들은 성경이란 신학적 신조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할 뿐 아니라 복잡하고 당혹한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위한 안내서(baedeker)가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주장들은 결국 성경은 기업 혹은 사업에의 적용에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여 주고 있다.

### 3) 성경에 해결책이 있는가?

#### (1) 성경이 의미하는 것

우리는 앞에서 성경의 기업 혹은 사업분야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살펴 보았다. 이 두 가지 견해들은 다 나름대로 타당한 논거를 갖고 있다고 본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오늘 날 우리가 직면하는 갖가지 문제, 예컨대, 사이버 공간, DNA, 배아줄기세포, 인공위성, 우주여행, 핵폭탄 등에 대해 아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현상이나 사업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성경이 직접적인 대답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우리의 삶과 무관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지침을 주지 않는 낡은 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고백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한 정확무오한 안내서임을 우리는 믿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

5) John H. Leith, ed., "Creeds of the Churches,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63, P.132

6) Leith, Creeds of the Churches, PP. 334-335.

7) Leith, Creeds of the Churches, PP. 231.

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거짓말 하지 말라” 라는 계명은 우리가 부닥치는 사업상의 문제해결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라든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라는 계명은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성경은 이와 같이 명백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예컨대, 기업의 이익을 배분할 때 자본주와 노동자에게 얼마의 비율로 배분해야 할 것인가. 기독교인 기업가가 어느 사업에 진출해야 하며 어디에서 그 자금을 조달해야 할지, 그 부채 비율을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할지, 기대 이익률을 얼마로 해야 할지, 어떠한 매체에 광고해야 할지 등의 물음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기업이나 사업 분야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처방이 될 수 없다.

비록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인간들이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이 성경에 모두 기록되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지침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실제 그러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함이 자명하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의 문제와 전혀 무관한 것인가?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또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갖가지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율법주의와 은혜주의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 (2) 율법주의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자주 그리고 크게 책망하셨다. 율법주의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그 결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의 규례를 준행하려 한다. 그들은 율법이 지닌 정신을 보지 않고 문자를 본다. 그들에게는 율법을 그대로 준수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들은 예수님과 안식일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크게 다투었다.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모두 613개에 이르는 율법의 조항으로는 사람들의 행동을 모두 규제하기 어려워 계속적으로 규례와 유전을 만들어 가야 했고 그 규례와 유전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베드로는 “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행 15:11)고 말했다. 바울은 율법주의를 비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갈 3:).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의 문자적인 준행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갈 2:21).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가 된다(갈 5:4)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기업의 경영방식이나 행동지침들이 성경에 모두 기록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율법주의처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업을 이끌어 간다고 주장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갖가지의 이슈에 대해 답하는 성경구절을 찾지 못해 실망하고 말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경우에 직면하면 새로운 규례나 유전을 만들어 추가하게 된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적인 접근으로서는 기독교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다.

### (3) 은혜주의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에스겔 11:19-20 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새 영을 주며 돌 같은 마음 대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 율례를 따르며 지켜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

말하자면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문자 대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에 은혜를 주어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가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요 14:26).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문자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율법이 명시하는 그 뜻도 알 수 있게 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사고와 행동방식이 달라지고 문화와 문명의 발달에 따라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달라진다. 어떠한 삶의 양식이 가장 적합한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가치관 또한 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모두 다르게 창조하셨다. 동일한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재능과 다양한 삶의 스타일을 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다양한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며 하나님의 찬양하는 방식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도 개개인에 따라 다양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뜻에 따라 각자가 가진 성품이나 지식이나 경험 등을 통해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앞서 해야 할 것이고 이어서 그 뜻에 따라 어떻게 그를 섬길 것인가는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경의 문자를 실제의 경영에 적용하려 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의 경영에 적용해야 한다고 보며 이것을 은혜주의라 부르고 있다.

## III. 기독교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성경원리

### 1. Grounds 교수의 성경원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업경영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은혜주의적 접근을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Grounds 교수는 기업 혹은 사업에서 고려해야할 성경의 원리 여덟 가지를 제시하였다<sup>8)</sup>.

8) Richard C. Chewnibg (ed.) Biblical Principles & Business: The Foundations, Navpress, 1989, Vernon C. Grounds, Responsibility and Subjectivity: Applying Biblical Principles in Business, 118-132.

(1)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sup>9)</sup>: 이것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무한함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을 기계의 부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일손이나 얼굴 없는 비인격체, 감정과 욕구 그리고 관계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2)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문구는 웨스트민스트 교리문답에 있는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산업과 상업을 위해 형성된 광범위한 사회구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와 그 활동의 지침은 골로새서 3:23에서 찾을 수 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3) 그리스도의 주되심(Lordship)을 현실에서 인정하라: 그리스도는 주시며 구원자이다(롬 14:9).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여긴다면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시장에서도 그러해야 한다. 주란 말 속에는 우리는 그의 종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를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4) 우리의 직업은 소명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의 직업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소명이므로 숭고한 마음으로 받아드려야 한다. Elton Trueblood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sup>10)</sup>. “...해외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농사꾼이 되겠다는 결심도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것일 뿐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삶을 살든, 농사일을 하든, 은행에서 일을 하든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다.”

(5) 우리는 청지기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분의 것이다(시 24:1-2). 하나님이 창조물의 관리를 일시적은 위탁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낭비와 오염, 그리고 유한한 자원을 이기적으로 소진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청지기 정신(stewardship)은 어떠한 물건을 만들고 어떠한 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야 한다. 청지기 정신은 이 지상의 자원을 현명하게 배분하는데 밑바탕이 된다.

(6) 그리스도 중심의 특성 개발: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남을 배려하고 동정심이 많은 즉 고결한 인격과 책임감을 지녀야 하며 자신보다는 남의 유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빌 2:4). 이것은 성경적 도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청교도적인 도덕관은 오늘의 자본주의적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덕목이 된다. 공정한 임금, 광고, 판매기법, 경영철학에도 이러한 도덕률이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7)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라이프스타일의 핵심이 된다(마 22:37-39). 예수님이 명한 이웃사랑은 단순한 감정 차원이 아닌 개인의 지고한 안녕을 위한 지속적 헌신을 의미한다. 이것은 황금률로 요약된다(마 7:12). 칼뱅은 “사랑의 법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였듯이 우리는 이웃의 안녕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고 한 것처럼 황금률은 우리의 모든 사업 거래에서 시금석이 된다.

(8)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교모하게 접근하는 우상과 돈을 숭배하게 하며 자신의 안전만을 이해 비굴하게 돈을 섬기는 인간의 탐욕을 벗어나

9) 창 1:27, 시 8:3-7 참조

10) Elton Trueblood, *The Common Ventures of Life*, New York: Harper & Row, 1949), pp.196-197.



라 경고하셨다(마 6:24). 그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셨다(눅 12:20).

## 2. 성경의 원리들

Grounds 교수는 기업에서 적용하여야 할 성경의 원리들을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들을 큰 흐름에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21C의 우리 인류가 직면하게 되는 갖가지 이슈는 2천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언급하지 내용들이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원리에 바탕 하여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그러한 원리에 비취보아도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도 개인에 따라, 시대에 따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판단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정의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불의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의 문제이다. 마치 어린애가 그의 미성숙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한 행동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그러한 경우 그 어린애에게 죄를 범했다고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와 같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경의 큰 흐름에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 1) 생명보존과 창조질서 원리

하나님이 그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다(창 1:27, 2:7)는 창세기의 기록은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위에 있음과 인간의 존엄성을 설명한다.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첫 계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창1:28)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브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만드시므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상호관련성을 갖게 하시고 인간의 경제가 수립되게 하였다. 가족은 개성의 차이성, 상하관계, 동일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나 구성원간에 존재하는 불평등성, 상호간의 사랑, 집단에 대한 충성심, 서로 간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의무로서의 봉사 등을 가정을 통해 알게 하신다. 사람들 간의 이러한 사회적인 성질 때문에 전문화, 상호의존성 및 교환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 교환이 바로 기업의 존재 이유가 된다.<sup>11)</sup> "생육과 번식"의 계명에 이어 "땅을 정복하고(subdue)",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rule)"는 명령이 추가되었다(창 1:28). "이 명령은 첫 인간인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다스리며(cultivate) 지키라(keep)는 것으로 이어진다(창 2:15). 다스린다는 단어의 원어는 abad으로서 경작한다(till) 또는 일한다(work)는 뜻을 가지며 성서에서는 섬긴다(to serve)는 단어로 번역된다. 지키다는 단어의 원어는 shamar로서 지킨다(to keep), 돌본다(to watch), 보존한다(to preserve)는 뜻을 갖는다. 그러므로 앞의 명령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이 명령은 앞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지키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이 명령에 따라 인간은 수탁자(trustee)의 위치에 선다. 인간은 생존을 위한 창조질서의 준수와 사회와 인간의 삶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을 위해 자원을 사용할 허락을 받은 것이다.

11) Kantzer, Kenneth S. "God Intends His Precepts to Transform Society", in Rechar C. Chewing (eds.), Biblical Principles & Business, 1989, pp.31-32.

## 2) 사랑의 원리

예수의 가르침에서 윤리적인 교훈만을 따로 떼 내어놓을 수 없다. 그의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회복을 위한 그의 가르침은 말씀을 통한 교훈에 한정되지 않고 그의 온 생애 자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그 극치이다. 그의 생애와 교훈이 분리될 수 없 듯 그의 가르침은 신앙과 윤리로 함께 어울려져있다. 예수님 교훈의 특징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에 따라 변하여 새사람이 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으로 그들과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다.<sup>12)</sup> 예수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 34 - 35)라는 새 계명을 주셨다. 사랑으로 바라보면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전개된다.

## 3) 청지기 윤리

성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라 말한다(고전10:26, 시 24:1, 시50:12). 인간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것이다. 성서는 인간을 청지기(steward)에 비유한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정직하게 그리고 선관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부지런히 관리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청지기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 4) 섬기는 종의 원리

예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으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마20:28).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여주심으로써(요13:13-15) 우리가 남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가르치셨다. 종은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 섬김이란 상대방의 필요를 파악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다. 섬기기 위해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마7:12)는 섬김의 원리를 필요로 한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심으로써 섬김의 대상은 지극히 낮은 자,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들임을 밝히셨다(마25:40).

## 5) 하나님 나라의 확장

예수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마6: 33)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보다 우선되어야 함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친다(마6:10). 이것은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며 그 나라가 확장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수의 최후의 부탁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는 것도 바로 이 하늘나라와 관련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란 우리가 모든 활동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이루어지는 나라를 의미하며 그 핵심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롬 14:17).

## 6) 율법의 원리

12) 김중기, "성서윤리", 박봉배외, 「기독교윤리학 개론」,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pp.82-125.

앞에서 제시한 여러 원리들은 단편적이라는 평을 받을 수 있으나 십계명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친 것으로서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기어경영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 예수는 부자 청년의 질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나는 율법(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십계명의 의미를 오늘에 맞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안식이라든가, 살인이라는 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재해석해 주셨다.

제1계명은 다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앓을 수 없음을 말한다. 그를 대신 하는 모든 것은 거짓 신이며 우상이다. 인류는 과학이나 기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제2계명은 하나님의 자리에 앓는 모든 것은 우상임을 말한다. 우상숭배란 상대적인 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부수적인 것을 필수적인 것으로,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을 그렇지 않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탐심 또한 우상이 된다(골 3:5). 예수는 하나님 대신 재물(mammon)을 섬기는 일에 대해 경고하셨다(마 6:19 - 25).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범해지는 각종의 불의를 금한다.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도 하는 것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제4계명은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한 것"(출20:9)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일하는 자에게는 안식이 주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예수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5:17)고 하심으로써 일은 저주가아니라 인간의 본분임을 가르친다. 인간은 일을 통해서 보람을 얻으므로 일을 돈벌기 위한 수단으로 격하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인간을 단지 생산의 노동요소로 전락하게 되며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며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계명은 인간이 힘써 일한 뒤에는 일에서 놓여나 쉬을 얻어야 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가정을 돌볼 여유를 갖게 한다.

제5계명은 조상의 은덕을 잊지 말 것과 좋은 전통을 존중할 것을 명한다. 바울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엡 6: 1)고 말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께 하듯 순종하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부모는 나를 낳은 가시적인 창조자이다. 부모에 대한 순종과 존경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경외와 감사를 배운다. 조상들이 모두 부모로 인정되듯 나이 많은 이들을 부모로 공경되어야 한다. 그들은 직접적인 부모가 아니지만 우리의 이웃을 나았으며 그 이웃은 우리가 내 몸같이 돌보아야 할 사랑의 대상이다.

제6계명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과 권리를 파괴한다. 예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5: 22)고 해석하심으로써 인간에 대한 미움이나 욕설, 경멸은 살인과 같음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제7계명은 성(sex)을 농락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녀로 지으시고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다(마10:6). 성서에서는 부부의 관계가 생물적인 관계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관계에 까지 확장하고 있다. 간음은 가정의 파괴를 의미하며 인간의 가치를 동물적인 것으로 끌어내린다. 남자

와 여자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창 2:18)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뿐 어느 한 성이 다른 성보다 우위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성차별은 인정될 수 없으며 각 성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제8계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할 것을 말하는 것이다. 각 사람은 청지기로서의 관리할 몫을 갖는다. 도적질은 하나님의 위탁을 거부하며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위탁하셨다. 그러므로 인간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따라 삶을 풍성하도록 맡겨진 자원을 활용하며 공정한 분배를 책임진다.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도다"(마 24:45 - 46)하신 말씀은 유한한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말하고 있다.

제9계명은 거짓말 대신 정직과 성실성을 지닐 것을 말한다. 사람은 다 말의 실수가 많으므로 (약 3:2)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온 몸이 더럽혀지고 생의 바퀴마저 불살라지게 된다.(약 3:1-12). 이 계명은 거짓말과 함께 저주의 말도 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약3:9-12).

제10계명은 훈련되지 않은 욕망을 금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눅 12:15)"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탐심이란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 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서 우상숭배가 된다(골2:5). Zoller는 탐욕이 십계명에 열거한 모든 계명을 범하는 원인이 된다고 말한다.<sup>13)</sup> 탐욕은 이웃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의 부를 늘리며(미2:2) 임금을 착취하며(약 5:4) 불의의 값을 사랑하게 되며(벧후2:15) 재물을 자기만을 쌓아 놓게 한다(전5:13, 눅12:16-21).

#### IV. 기독교 기업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 1. 기독교적 기업의 판별

우리는 앞에서 기독교영을 정의하고 기독교영을 위한 성경의 적용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기독교영의 실천에 관한 것으로서 CEO가 기업의 현장에서 기독교영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기독교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문제에 있어서 CEO가 기독교인이라 해서 그가 경영하는 기업도 기독교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 못된 생각이다.

실제 어느 기독교인이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 비록 그가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며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행하며 또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을 바탕으로 그가 기독교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판단할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기업의 경우도 그러하다. 기업의 경우는 거대하고 그 활동영역이 광범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기독교적 기업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 특히 개인이 경우와는 달리 개인인 CEO의 기독교적인 신앙이 기업의 현장에서 실천되는 일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일개인의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 의해 이루어지고 또 기업은 그 자체의 조직 문화와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법적, 정치적 환경의 강력한 제약 하에 있기 때문에 더

13) Zoller, John Edward, The Ten Commandments, (권명달 역, 「십계명 해설」, 보이서사, 1990, p.18.

욱 그러하다.

기독교적인 기업경영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명과 그 활동의 내용을 살펴보고 기독교경영의 실천이 가능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기업이 기독교적인가를 판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2. 기업경영의 재검토

이를 위해 이 장에서는 기업경영의 내용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모든 기업은 목적(objectives) 혹은 사명(mission)을 갖는다. 만약 목적이나 사명이 없다면 그 기업은 존재가치를 상실한 것이라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의 목적 혹은 사명은 일차적으로는 이익의 획득과 관련을 갖고 있다. 이익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그 기업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화(planning), 조직화(organizing) 및 통제화(controlling)이라는 순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계획화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관련된 활동이며 조직화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에서의 활동이다. 그리고 통제화란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을 통제함으로써 효율적(effective)이며 능률적(efficient)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모든 활동을 평가하여 통제하는 활동으로서 이를 평가화(evaluating)라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영순환의 모든 과정에서는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의사결정은 경영의 핵심이 된다.

또 기업은 그것을 둘러싼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활동한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경영적 환경, 정치 법률적 환경, 사회 문화적 환경 및 기술적 환경과 밀접히 연관되어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제약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는 크게 규제받고 있다. 기업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산출물(outputs)을 고객에게 공급하므로 그 사명을 담당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자원을 투입하며 획득된 이익을 배분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기업이 기독교적인 원리를 적용하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 기업을 기독교적인 기업이라 해서 틀림이 없을 것이다.

## 3. 기독교적 기업의 판별조건

어느 한 기업이 기독교적 기업인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잠시 살펴본 기업경영의 재검토를 바탕으로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 1) 기업의 동기가 무엇인가?

기업은 일차적으로 이윤획득을 위한 것이지만 그 기본적인 동기나 사명이 이윤동기 이외에 기독교적인 어떠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기업은 기독교적인 기업으로 간주하기 힘들 것이다. 신앙고백에서 밝힌 대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기뻐하는 것"이듯 기업의 제일 되는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를 기뻐하는 것" 과 관련된 중요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기업이이익의 사회적 환원이라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사회적 공헌을 위한 여러 가지의 바람직한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깊은 곳에 기독교적인 동기가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기독교적 기업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한 기업이 설립될 때 이러한 동기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설립 이후에라도 이러한 동기에 맞춰 기업을 운영하기로 한다면 그 요건을 충족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동기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므로 객관적인 확인

이 쉽지 않지만 기업 활동이나 CEO의 행태가 그 기업의 동기를 은연중에 표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것에 의해 그 동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업의 목적이나 사훈 혹은 경영방침에 기독교적인 것이 반영되어 있는가?

기업체의 경영목표나 사훈 혹은 경영방침에 기독교적인 것을 나타내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것을 명백히 표방하는 경우에는 반기독교적인 공중(公衆)이나 단체 혹은 기관으로부터 지탄 받을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언하는 경우는 기독교적인 경영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기독교적인 것을 위해 손실이나 피해 혹은 핍박을 받을 것을 각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기업을 기독교적 기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기업의 경우는 기독교 기업임을 표방하고는 종업원을 상대로 예배를 강요하거나 심지어는 십일조를 그 기업에서 설립한 기관이나 선교모임에 내도록 권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그 기업이 기독교적 기업을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종업원들의 원성을 듣게 되어 그 의도하는 바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강제로 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기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기독교인으로 종업원을 구성하려고 하는 경우는 종업원의 채용에 그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한정할 수 있으나 비기독교인을 강제로 기독교인 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기독교 환경을 통해 자발적으로 종업원을 기독교인이 되도록 감동을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3) 기업의 이익이나 비용지출이 기독교적인가?

기업의 이익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며 미래를 대비한 준비금이다. 이것은 기업의 이익의 일부는 미래의 위험과 성장을 위해 기업내부에 예치되어야 하며 또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경제에서 중시되고 있는 분배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파악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그의 수입의 10분의 1을 십일조 헌금을 드림으로써 그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듯 기독교적인 기업도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최근 기업들은 기업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금 형태로 지역의 각종 행사나 편의 혹은 환경을 위해 지불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기업 이익 중의 일부를 기독교적 정신에 따라 선교활동 혹은 선한 사업에 직 간접적으로 일정액 혹은 일정률을 지속적으로 지불한다고 하면 그 기업은 기독교적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계명에 어긋나는 정책이 없는가?

십계명은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이의 실행여부를 판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십계명은 이를 판단하는 어느 정도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제4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를 측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일에 정상적인 출근을 하도록 회사 방침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계명에 어긋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기업의 성격상 주일에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는 예외로 봐야 할 것이다. 어떤 기업체에서는 그 광고문에서 "주일은 쉽니다"

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그 기업이 기독교적 기업이라는 것을 알리려 하지만 최근에 주5일 근무제 때문에 이 문구는 전혀 무의미한 것이다. 다른 계명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어긋나는 정책을 사용하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지만 사람의 생명에 해를 끼치는 제품의 생산 혹은 제조상 종업원의 건강에 위협을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는 제6계명을 거스르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남녀간의 성차별을 용인하는 정책,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이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제9계명은 기업의 정직성을 저버리는 정책이나 기업 행태(이것은 탈세나 허위 서류나 장부 작성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5계명은 나이 많은 사람들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는 경우, 혹은 노인들의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의 정책 등이 바로 계명을 거스른 것을 판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10계명의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다른 업체의 지적소유권이나 기밀을 알아내고 이를 이용함으로써 그 기업이 누리는 이익을 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십계명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 기업이 실제상의 기독교적인 기업의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 5) 의사결정 과정에 하나님의 의가 반영되고 있는가?

의사결정이란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대체안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 때 선택의 기준은 기업의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된다. 의사결정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경영활동의 핵심에 위치한 것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은 외부적으로 누출되고 않고 그 결과만 알려지기 때문에 그 결정과정이 기독교적인가의 여부를 외부인들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이익획득이란 기준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A 안이 선택되어야 하지만 거래처를 고려한다면 A 안 대신 B 안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의에 기준을 둔다면 A안이나 B안은 모두 기각되고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C안이 채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에서 하나님의 의 혹은 앞장에서 논한 성경의 원리들이 얼마나 존중되어 반영되고 있는가에 따라 기독교적인 기업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판별기준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실제 이를 적용하여 어느 한 기업이 기독교적인 기업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결정함에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시한 판별기준들 중에 일부만이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할 뿐 대부분의 조건들은 기업 외부인들이 관찰하거나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해당 기업의 경영자가 판별조건에 대해 주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서술이 얼마나 객관적인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이 사실이다.

#### 4. 기독교적인 기업을 왜 판별하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어느 한 기업이 기독교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에 속하여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어느 한 개인이 기독교인인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어려움에 직면한다. 어떤 개인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교회의 출석률, 십일조 및 헌금정도, 교회에서의 직분, 수세 여부, 교회행사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이러한 기준들은 외적인 것일 뿐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가 신앙고백을 한다하더라도 그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인가를 판단할 아무런 척도도 없는 것이다. 다만 그가 기독교인이라 주장한다면 그를 받아드리는 방법 밖에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기업이 기독교적인 기업인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은 기독교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밝히고 그 정의에 비추어 볼 때 해당기업이 기독교적인 기업에 속한다고 명확히 밝힐 경우는 그 기업을 기독교적 기업이라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왜 어느 기업이 기독교적 기업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려하는가 하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적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더 큰 애정으로 그 기업을 지원해야 하거나 관심 있게 지켜보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다만 더 많은 기독교적인 기업이 출현함으로써 기업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기업계에서도 임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업이 기독교적 기업인가를 확실하게 알리고 기독교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밝힘으로 기독교적 기업으로 동참하도록 함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 V.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경영의 이론적인 전개와 실천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기본적인 과제로 기독교경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경영을 위해 성경의 적용이 가능한가? 기독교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하는 몇 가지 과제를 검토하였다.

한국의 기업경영은 그 역사가 일천함으로 경영의 이론적임 바탕이 얇고 또 실천 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경영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바탕이 오히려 기독교경영의 뿌리내림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한다. 더욱이 기독교경영연구원과 로고스경영연구원 그리고 통합학회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조직되어 나름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고 또 한국로고스경영학회가 본격적으로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은 기독교경영의 이론과 실천을 더욱 깊이 있고 광범하게 그리고 알차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경영을 성경이 제시하는 경영의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실제 경영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성경을 기업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교조주의적인 엄매임이나 자유주의적인 일탈을 경계하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독교경영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인 기독교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을 판별하기 위해 제시된 다섯 가지 기준들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대단히 힘들지만 적어도 기독교경영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어느 정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기독교적인 기업경영



을 하기 위한 안내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영을 전개하기 위해 직면하게 될 몇 가지 기본과제를 다룬 것이나 기존의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 연구는 탐색적인 연구라 생각되며 기독교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 김중기, "성서윤리", 박봉배외, 「기독교윤리학 개론」,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pp.82-125.
- \* Allen Hollis, The Biblical and Money, New York:Hawthorn Books, 1976), pp.5, 9-10. Principles & Business The Foundation, arranged by Richard C. Chewning, Navpress, 1989, PP.121.
- \* Christianity and Economics, New York: Macmiilan, 1939, PP.72-73.
- \* Elton Trrublood, The Common Ventures of Life, New York: Harper & Row, 1949), pp.196-197.
- \* John H. Leith, ed., "Creeds of the Churches,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63, P.132.
- \* Kantzer, Kenneth S. "God Intends His Precepts to Transform Society", in Rechard C. Chewning (eds.), Biblical Principles & Business, 1989, pp.31-32.
- \* Leith, Creeds of the Churches, PP. 334-335.
- \* Richard C. Chewnibg (ed.) Biblical Principles & Business: The Foundations, Navpress, 1989,
- \* Vernon C. Grounds, Responsibility and Subjectivity: Applying Biblical Principles in Business, 118-132.

#### <요약>

### 기독교영과 관련한 몇 가지 과제

정충영\*

#### 기독교영의 전개를 위해

본 연구는 기독교영의 이론적인 전개와 실천과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기본적인 과제로 기독교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기독교영을 위해 성경의 적용이 가능한가? 기독교영에 적용할 수 있는 성경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영을 실천하는 기업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가? 하는 몇 가지 과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기업경영은 그 역사가 일천함으로 경영의 이론적임 바탕이 얇고 또 실천 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영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바탕이 오히려 기독교영의 뿌리내림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 더 큰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판단한다. 더욱이 기독교영연구원과 로고스경영연구원 그리고 통합학회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조직되어 나름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고 또 한국로고스경영학회가 본격적으로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은 기독교영의 이론과 실천을 더욱 깊이 있고 광범하게 그리고 알차게 만들고 있다고 본다.

## 성경을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경영을 성경이 제시하는 경영의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실제 경영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성경을 기업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견해 그리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부정적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천문학자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으시듯 사업가에게도 자신의 말씀을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Josiah Stamp는 이 견해를 잘 설명하고 있다. 즉,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선적으로 영적인 것일 뿐 경제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지녔던 경제적 사고방식도 당시 시대의 조건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그의 경제적 사고방식을 오늘의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성경의 자구(字句)로부터 오늘날의 경제적 문제를 위한 직접적인 지침을 도출하려는 과거의 시도는 대부분 실패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견해를 가진 학자들은 말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함이라"(딤후 3:16-17)는 말씀이 보여주듯 성경의 가르침은 영적 그리고 세속적인 모든 활동에 적용되는 절대계시이다. 기업분야의 제조, 금융, 관리, 수출입과 같은 모든 비즈니스 활동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는 파라미터(parameter) 안에서 수행되어질 것뿐이다. 성경은 기업 혹은 사업에의 적용에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오늘 날 우리가 직면하는 갖가지 문제, 예컨대, 사이버 공간, DNA, 배아줄기세포, 인공위성, 우주여행, 핵폭탄 등에 대해 아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현상이나 사업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성경이 직접적인 대답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의 문제와 전혀 무관한 것인가?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또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갖가지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성경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는 율법주의와 은혜주의를 검토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율법주의는 기록된 문자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 문자에 따라 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율법주의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갈 5:4) 문자를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 은혜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가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요 14:26).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율법이 말하는 문자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율법이 명시하는 그 뜻도 알 수 있게 된다.

## 적용가능한 성경의 원리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경영은 성경의 문자를 실제의 경영에 적용하려 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제의 경영에 적용해야 한다고 보며 본 연구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원리라 부르기로 한다. 성경의 원리를 잘 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한다.

- 1) 생명보존과 창조질서 원리
- 2) 사랑의 원리

- 3) 청지기 원리
- 4) 섬기는 종의 원리
- 5) 하나님 나라의 확장
- 6) 십계명의 원리

### 기독교 기업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어느 한 기업이 기독교적 기업인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잠시 살펴본 기업경영의 재검토를 바탕으로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 1) 기업의 동기가 무엇인가?
- 2) 기업의 목적이나 사훈 혹은 경영방침에 기독교적인 것이 반영되어 있는가?
- 3) 기업의 이익이나 비용지출이 기독교적인가?
- 4) 계명에 어긋나는 정책이 없는가?
- 5) 의사결정 과정에 하나님의 의가 반영되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 기준들은 객관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대단히 힘들지만 적어도 기독교경영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어느 정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고 따라서 기독교적인 기업경영을 하기 위한 안내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경영을 전개하기 위해 직면하게 될 몇 가지 기본과제를 다룬 것이나 기존의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이 연구는 탐색적인 연구라 생각되며 기독교경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제목 차례>

● I. 서론	2
● II. 기독교경영은 무엇이며 그것은 가능한가?	2
● 1. 기독교경영이란 무엇인가?	2
● 2. 기독교경영은 가능한가?	4
● 1) 부정적 견해	4
● 2) 긍정적 견해	5
● 3) 성경에 해결책이 있는가?	6
● (1) 성경이 의미하는 것	6
● (2) 율법주의	7
● (3) 은혜주의	8
● III. 기독교경영을 가능하게 하는 성경원리	8
● 1. Grounds 교수의 성경원리	8
● 2. 성경의 원리들	10
● 1) 생명보존과 창조질서 원리	10

● 2) 사랑의 원리	11
● 3) 청지기 윤리	11
● 4) 섬기는 종의 원리	11
● 5) 하나님 나라의 확장	11
● 6) 율법의 원리	12
● IV. 기독교 기업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13
● 1. 기독교적 기업의 판별	13
● 2. 기업경영의 재검토	14
● 3. 기독교적 기업의 판별조건	14
● 1) 기업의 동기가 무엇인가?	14
● 2) 기업의 목적이나 사훈 혹은 경영방침에 기독교적인 것이 반영되어 있는가?	15
● 3) 기업의 이익이나 비용지출이 기독교적인가?	15
● 4) 계명에 어긋나는 정책이 없는가?	15
● 5) 의사결정 과정에 하나님의 의가 반영되고 있는가?	16
● 4. 기독교적인 기업을 왜 판별하는가?	17
● V. 결론	